

영어의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¹

김 창 호
(원광대학교)

Kim, Chang-Ho. 1997. A Study on Early English Education. *Linguistics*, 5-2, 117-13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rvey early English education and its problems and to suggest effective and practical teaching methods for improving our current early English teaching.

We think early English education is necessary in terms of physical,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But a lot of problems must be solved such as textbooks, teacher's capability,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teaching methods and skills and so on.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developing much better systematic teaching materials, investing more funds to early English education, enhancing chances of learning better skills for English teachers and others are needed. (Wonkwang University)

1. 서론

현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를 주고 받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간의 개방, 교류가 여러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그 개방의 속도는 일반인의 인식정도를 뛰어 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의 조류와 국내의 대세를 거역할 수 없으므로 국제간의 상호의사소통의 수단인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어로서 영어의 위치는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훌륭한 영어구사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영어구사력이 없이는 국제무대에 나설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주위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생소하지 않고 또한 inter-net을 통해 세계의 어떤 정보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많은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는 바로 영어이다.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질 높은 문화의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을 영어교육을 받아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1. 이 논문은 97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이루어지지 않는 실용성이 없는 교육을 해 왔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 영어 교육의 현실을 다시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연차적으로 영어를 정규교과에 도입시키면서 소위 조기 영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조기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중등학교 영어교육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조기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한 모국어에 대한 이해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관 확립에 저해가 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정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현실적 필요를 근거로하여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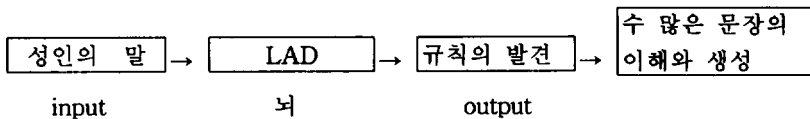
사실 1981년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 특별활동 중의 하나로 영어교육을 부분적, 비 정규적으로 실시한 이래 1997년 영어교과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어린이들의 외국어 습득과 조기 영어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에 대해 고찰하고 또한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제 출발한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 실시에 다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외국어 습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언어 사회에 노출되어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입력(input) 받음으로써 LAD가 뇌에서 작용됨에 따라 어린이 스스로 어떤 규칙을 발견, 수많은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언어 습득 과정>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언어 습득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도구는 모방임을

알 수 있는 데 모방은 초기 언어학습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own(1980:34)은 최초의 모방을 표층구조 모방이라고 하면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음절의 반복 등을 예로들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내재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심층구조 모방인데 즉 어린이는 표층 모방에서 심층 모방으로 발전하는 셈이다. 한편 모방과 연관된 연습이라는 말이 있는 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모국어 습득은 연습을 통해 말이 습관화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계적인 연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의 습득이 이렇다면 외국어의 습득은 어떠한가. 외국어 습득이란 모국어와 구조나 형태가 다른 언어를 배울 뿐 아니라 언어에 내포되거나 언어로 표현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일이 포함된다 (배두본.1990). 그러면 외국어 습득을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1 신체적 영역(Physical Domain)

신체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는 대뇌 생리적 문제와 발화 문제가 있는데 Lenneberg (1964,1967)의 반구편중현상과 언어습득시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Lenneberg는 이 현상이 2세에서 시작하여 사춘기 이전에 완성되므로 사춘기까지의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주장하였다(Lenneberg, 1967:158). 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Krashen(1973)이나 Asher(1986) 등이 있는데 특히 Asher(1986)는 성인과 소아의 두 집단의 기억 보존량 비교를 연구했는데 성인이 소아의 2배 가까운 기억 보존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어 성인도 어린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은 언어습득에 도움이 안되므로 결정적 시기설은 무의미하다고 Lenneberg에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발화근육문제는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를 배운 경우와 성인이 된 후에 배운 경우를 비교했을 때 사춘기 전의 경우가 토박이와 같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가 5,6세 정도가 되면 발성기관근육에 유연성이 있어서 외국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하는데 이는 결정적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사춘기 이후에는 완벽한 외국어 발음을 습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² 물론 발음이 언어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한다고 해서 언어학습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체적 요인 외의 다른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이것은, 갓난아이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국인과 똑같은 영어발음을 할 수 있는 반면, 중학교 이후부터 10여년간 영어를 배운 동양인들이 매우 어색한 영어발음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1.2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어린이가 우수한 인지력을 가진 어른 보다 외국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근거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11세 전후에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단계로 전환된다고 하는 점에서 볼 수 있는데 Piaget의 인지 발달 4단계는 다음과 같다.

<도표1>Piaget의 인지발달 4단계

단계	시기	연령	특징
1단계	감각운동시기	(0세~2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사 행위에 흥미를 느껴 반복한다. · 어떤 대상과 능동적인 실험을 한다. · 자기 주변에 있는 실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2단계	전조작시기	(2세~7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공간,질,소유화,구체화 개념이 생긴다. · 자기중심성이 강한 직관적 사고가 생긴다.
3단계	구체적 조작기	(7세~1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형성된다.
4단계	형식 조작기	(11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추상적사고,복잡한 이성 및 성인의 思考를 갖게 됨

Piaget는 구체적 조작단계에서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Rosansky (1975:96)는 어린이가 이 시기에는 self-centered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로지 한 가지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연성의 결여, 또는 분석력의 결여가 도리어 언어학습의 잇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1.3 정의적 영역 (Affective Domain)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므로 모든 사고와 행동에는 정서가 깃들여져 있으므로 외국어 습득에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Brown(1980:53)는 정의적 영역에 감정이입(empathy), 자존심(self-esteem), 억압(inhibition), 모방(immitation), 불안(anxiety), 등을 들고 있는데 특히 동료의 압력(peer pressure)은 어린이가 외국어 습득이 용이하다고 증명하는데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 언어학습에서 어린이들의 동료의 압력은 동료집단과 같게 되려고 말과 행동, 기타 등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데 결국 이는 언어습득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또 Guiora(Brown 1980:53에서 재인용)는 어린이의 자아는 사춘기까지 성장을 계속하여 유연성이 풍부하고 유동적이므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도 자아에 대한 큰 위협이나 방해없이 쉽게 그 언어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방어기제 (Defensive Mechanism)을 일으켜 언어자아는 보호적이고 방어적이 되어 모국어에 집착, 외국어 표현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자아완성이 되면 새로운 언어습득이 어렵게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외국어 학습의 새 영역을 종합해 볼 때 외국어 습득은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 때문에 조기 영어교육은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새 언어 정책으로 확정되어 선진국에서부터 실시되어 시대적 조류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파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기 외국어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Mackey(1965: 6)교수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In most parts of the world today there's a trend to begin the teaching of the foreign language earlier and to continue it for a longer period. This has created a need for new method and materials suitable for lower age group, and for new courses for learners who have completed the elementary language training in primary school.

2.2 외국의 동향

본격적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41년 1차 세계대전이후의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의 형식교육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념도 보편화 되고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조기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조기 영어교육 상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실태를 살

펴봄으로써 서로 비교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2.1 미국

미국의 FLES (Foreign Language in Elementary School)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수년간에 걸쳐 눈에 띄게 수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조기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1950~1960년대에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영어력을 습득할 때까지는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제 2외국어로서 영어 교육을 권장한다는 Bilingual Education Act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2.2 영국

영국은 1963년 8살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불어교육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의 실험을 평가한 결과 초등교육에 불어를 도입하여도 교육의 어떤 다른 면이나 일반적인 지적발달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조기의 불어교육의 습득 달성에 실질적인 잇점에 대해서는 Burstall(1978)은 8살에 배우기 시작하나 11살에 시작하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청취력에서만 조기교육을 받은 집단이 약간 우위를 나타낼 뿐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하여서 아직도 찬반론이 계속되고 있다.

2.2.3 프랑스

프랑스는 1954년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어 영어와 독일어 및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데 그 긍정적 효과가 30% 안팎이어서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확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4 캐나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라는 두 개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계 아이들에게는 불어를, 불어계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려는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mersion programmes'(제 2언어가 수업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가 특히 유아들의 프로그램에 기대를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캐나다인을 2개국어 상용자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5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국제 공통어인 영어를 20여년전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영어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6년 등 총 9년간 영어를 공부하며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구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된다.

2.2.6 일본

영어교육 실시 학년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1학년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데 이는 영어학습 시작 연령을 낮추어 적응력이 뛰어난 시기에 음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바람직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2.2.7 독일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패망후 영어 조기교육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지금은 90%이상의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구 동독에서는 러시아어를 더 강요하였으나 통일 이후 영어교육이 크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타 나라들을 보면 대만의 경우는 표면상 중학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사설학원을 이용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스리랑카는 유치원의 75% 이상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홍콩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 5회 30분 이상씩 영어를 가르치며 이집트는 4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데 만일 수업시간에 영어교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직당한다고 한다.(한상진,1994)

이상에서 세계 각국의 영어조기교육을 약술해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조기 영어교육을 꼭 실시해야만 하는가 하는 데 초점을 모으게 되는 데 조기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두 가지 관점 즉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에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2.3 여러 관점에서 본 조기 영어교육

2.3.1 긍정적 관점

조기 영어교육을 긍정으로 보는 시각은 일찍이 Chomsky의 언어 습득장 치론(LAD)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Chomsky는 LAD에는 타고 날때부터 Universal Grammar가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때문에 어린이가 입력에 접하게 되면 단시일내에 언어를 습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Lenneberg(1967 :151~154)는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장애요인이 가장 적은 때인데 결정적 시기가 경과하는 12세 이후는 대뇌조직의 유연성 둔화로 언어습득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가 조기 외국어 교육을 더욱더 뒷받침 하고 있는 데 Piaget는 인간의 지적 발달을 감각적 조작기, 전 조작기, 조작기 단계로 구분하여 11세 이후의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서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Macnamara(1975)는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 볼 때 호기심과 자기 현시욕이 강하기 때문에 연령이 유사한 동료집단이 생활속에서 외국어 사용을 선호하는 욕구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어를 통한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Oliva(1969)는 어린이들이 저항감이나 자아의식이 없어 외국어로 말하려고 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실수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로 8~10세 때가 외국어 학습의 가장 좋은 시기이며 이 시기는 또한 어린이가 모국어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뿐 아니라 말의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급속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조기 영어 교육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체적 이유는 조기 교육의 국제적 추세, 국제 사회에서의 낙후성 탈피, 외국의 성공사례, 우리의 생존의 공간을 국제적으로 넓히기 위한 생활 수단으로서 조기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있다.

2.3.2 부정적 관점

언어란 일련의 습관 형성이므로 인간의 인지적·신체적 발달 과정으로 보아 외국어를 배우는 연령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언어의 어면 기능 즉 문법이나 읽기 기능은 어린이 보다 성인이 더 빨리 습득된다고 한다.

Rivers (1968 : 129~130)은 어른은 어린이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는 유추에 의해서 외국어를 배우나 어른들은 분석적 사고로 배우게 되므로 어린이가 수년걸린 학습을 성인은 700~800 시간에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수권(1994 : 301)은 사춘기 이후의 학습자가 또한 어휘나 문법학습에 뛰어나며 자신의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고 학습방법 면에서도 연역적 학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남식(1979)도 어른들은 어린이에 비해 모방력이 약하여 발음면에서 불리하지만 구조 이해 능력이나 개념 이해 능력이 어린이 보다 탁월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데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Stern(1983)은 언어학습에는 최적 시기나 또는 결정적 시기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없다고 하고 있는 데 다만 어린이는 의사소통상황에서 직관적인 반응을 하고 어른은 의식적 인지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용이하게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가 모국어 습득하기 전에 외국어를 배우면 언어의 혼란이 생기며 주체성이 회박해지고 어린이에게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일은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조기 교육은 그 장점 만큼이나 단점도 많다. 어린이들이 언어를 쉽게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쉽고 빠르다는 것이 어린이들의 약점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배우기는 좀 느리지만 일단 배운 말을 쉽게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조기 영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과 교사의 자질, 교수 방법의 부재, 시청교구의 미비,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등이 조기 영어 교육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이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인간의 언어습득을 강조하며 외국어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부정적 관점은 교육여건, 교사양성, 교수자료의 개발, 주체성 약화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조기 영어 교육의 찬반의 논란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97년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정규과목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기 영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발생된 문제점과 또 그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우리나라 조기 영어 교육의 실태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 교육은 미국 및 유럽의 그것보다는 짧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부분적, 비정규적인 조기교육이 실시되어왔고 이를 배경으로 교육부는 1982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시행을 승인하였다. 그 큰 이유로서는 사람들이 영어교육을 6~10년간 받고도 회화를 할 수 없으므로 산 영어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특활반으로 실시하거나 아침 자습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하는 등 부분적으로 실시가 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95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영어 수업계획을 발표한지 2년 만인 97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수업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의 경우 준비를 위해 쓴 영어 과외비가 3천 5백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영어교육과 만나기도 전부터 아이들은 영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 아동들 중 60%에 가까운 아동들이 이미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유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육과정엔 영어를 집어넣고 있다. 다음 표는 필자가 익산시와 근교 농촌 지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실시 여부를 설문조사한 표이다.

<도표 2> 지역에 따른 유치원 영어교육 실시

지 역	실 시 한 다	안 한 다	계
익 산 시	124	76	200(명)
농 촌	59	41	100(명)

이 표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어린이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과반수 이상이 영어를 접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이외에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는 방문교사와 함께 하는 교재학습이 가장 많았고(32%), 학습지나 Video Tape 등의 교재를 가지고 아이 혼자 또는 엄마와 함께 하는 경우(8.2%)였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지도를 받는 아동들도 있었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부모들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자녀들의 영어교육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간신히 모국어를 구사하는 아동시기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도 5% 가까이 되었는데 이는 「눈높이 국어·영어」 「구몬 학습」 지와 같은 교재를 이용하여 모국어의 글자지도와 영어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어린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동기에 관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릴수록 영어 습득이 용이하다' '초등학교 진학시 수업받기가

편하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 부모들의 조기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의식은 국제인을 만든다거나 세계화에 발을 맞추는 것 보다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나 성적향상이라는 현실적인 것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의 본래 취지에 약간 어긋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코흘리개 학생들이 쓴 영어과외비가 3천5백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데 여기에 더하여 어린이가 영어교육 과외비까지 추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120여 개 학원은 항상 만원 사례라고 한다.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중에는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ABC조차 모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 과외가 필요할 지 모를 일이다. 뒤쳐지는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입장과 초등학생 정규과목 학원 수강 금지라는 교육부의 입장이 영어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즈음에서 영어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을 서글프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기 영어 교육의 후유증이 여기저기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많은 수가 조기 영어교육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 증후군에 너무 난감해하고 불만을 표시하기 보다는 실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4.1. 문제점

2.4.1.1. 교사

교육의 핵을 이루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중등학교 영어교사 보다 실용영어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는 대상자가 흡수력이 뛰어난 아동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를 볼 때,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다량의 우수교사를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을 몇 시간의 연수로 현지에 투입한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동들이 성인들보다 영어습득이 용이한 가장 큰 잇점 중의 하나가 발음인데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4년동안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만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때문에 조기 영어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여부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2.4.1.2. 교육시설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초등학교 어학실습실 확보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 훌륭한 어학실습실이 갖추어져야만 만족스런 영어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는 초등학교 영어교사 교육을 제대로 거친 교사들에게는 시설이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학실습실은 학생의 보충교육용으로 매우 좋은 교수보조장치이다. 정확한 발음교육이나 영어의 원음에의 노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native speaker의 음성을 듣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어학실습실 및 시청각 자료들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미비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2.4.1.3. 교재의 개발 및 학급 규모의 축소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교재의 선택방법은 국가기관에서 지정해 준 교과서나 교재이다. 물론 학교나 교사 개인이 영어의 기초학습에 필요한 문법서적이나 회화Tape을 개별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중인 교재나 교구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엄청난 연구와 실험으로 실용적인 교재의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학급의 학생수가 큰 문제인데 현재 초등학교 한 한급당 학생수는 거의 40명을 넘고 있다. 주어진 시간에 40명이 넘는 학생들과 회화위주의 영어 수업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과밀 학급의 수업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기 십상이니 학급당 학생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4.2. 대안

2.4.2.1. 현재 회화능력이 부족한 영어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재훈련시키는 것이다. 방학 때 몇 시간만 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기간의 급여는 직무기관과 동일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또는 각 대학이 영어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졸업생 중 영어회화 교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영어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 그 외

에 영어 교육학과나 영어 영문학과 4학년 중에서 영어회화에 능통한 사람을 수업 없는 시간을 활용해 초등학교에 투입하는 것이다. 영어를 전공한 우수한 젊은이들을 100%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2.4.2.2.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일꾼이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영어를 즐겨 배울 수 있는 학습환경이 마련되어야 조기 영어교육의 목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학습환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LAB실, VTR, 녹음기, OHP 등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매체들을 활용함으로써 조기 영어교육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제도적, 재정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2.4.2.3. 현재의 교과서, 녹음 tape, video tape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재로도 흥미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게임이나 놀이자료, CD-ROM과 같은 교육자료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전폭적으로 축소시켜 20명선 정도를 유지하여 개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외에도 교육청 단위로 실력있는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여 여러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보충지도를 한 다거나 또는 영어적인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 정규 교과시간 외에도 영어 만화나 영화를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 시청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교육방송 영어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앞으로 아동들에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켜 듣기, 말하기 읽기 등에 대한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 시기의 학습이 중·고등학교 영어학습에도 실제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하겠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교사없이 Tape를 만을 들고 따라하거 Video만을 틀어주는 형태는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무관심을 초래하며 중학교 영어교육에서 흥미를 상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고 심리에 맞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때 중학교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조기 영어교육이 되는 길일 것이다.

3. 결론

오늘날처럼 영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사용은 필수적이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곧 국력이 된 현실속에서의 능력있고 당당

한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육성은 시대적 국가의 요청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 맞는 이 대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주역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 21세기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자신의 성장발전과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폭 넓게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기 영어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매우 높은 열의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교육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또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학습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성공적인 조기 영어교육이 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이 성공하려면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기 영어교육이 질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시 효과적인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상급학교에서 영어학습의 속도만 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잘못된 발음의 교정은 처음 배울 때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림) 주의해야 할 일이다. 조기 영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고 부단한 노력으로 영어교육을 수행한다면 학생들이 미래에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이에 정부 당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이고 이해심있는 지원과 협조가 밑받침이 되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후 나타나는 무분별한 학원의 영어교육, 무자격 외국인 교사들의 난립(현재 합법, 불법 외국인 강사는 5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체계적인 영어학습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의 영어교육, 외국의 것을 무조건 베끼기식의 영어교재 등의 여러 문제점이 우리 앞에 있다. 또한 영어의 실용화와 적절한 교재개발, 이상의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조기 영어교육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본다.

참 고 문 헌

- 박남식. 1979.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딜레마-문제와 대안," 영어교육 17.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이옥로. 1982. "LAD 와 조기 영어교육," 영어교육 23.
- 이혜란. 1985. "국민학교 영어교육 실태연구," 영어교육 29, 30.
- 하수권. 1994. 외국어 조기교육의 고찰: 국제화 시대의 이중언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한상진. 1994.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교육진흥 1994년 봄호.
- Asher, J. J. 1986.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 Sky Oaks Productions.
- Brown, H.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Y:Prentice Hall.
- Burstall, C. 1978. "Factors affecting foreign language : a consideration of some recent research findings," in V. Kinsella ed.,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surv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Guiora, A. Z. et al. 1972.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4, 287-297.
- Krashen, S. D. & T. D. Terrel. 1983. *The Natural Approach*. Oxford: Pegamon press.
- Lenneberg, E. 1964.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Lenneberg, E.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Wiley & Sons.
- Mackey, W. F.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Bloomingto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Press.
- Macnamara, J. 1975. "Comparison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7.
- Oliva, F. 1969.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Englewood cliffs, N.Y. : Prentice-Hall.
- Piaget, J. 1962.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3rd ed. London : Rontledge & Kegan Paul.
- _____. 1969a. *The Mechanism of Perception*. N.Y. : Basic Books.
- _____. 1969b.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Y. : Basic Books.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Rosansky, E. 1975. *The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 Some Cognitive Deve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 Stern, H. H. 1983. *Fo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132 김 창 호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Tel.: +82-653-850-6518